

#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3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7월 1일

##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이성제\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한 줄기 긴 장벽으로 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2. 수(隋)와의 전쟁 경험, 겹겹이 늘어선 성곽으로 방어전술 강화
3. 645년 전쟁과 당군의 패배
4. 맺음말

#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이성제\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구려는 당의 위협에 맞서 631년부터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 거국적인 공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방어체제는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천리장성을 통한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와 함께, 패배를 거듭하던 고구려가 안시성(安市城) 항전으로 가까스로 당의 침공을 격퇴했다고 이해하던 645년 전쟁의 경과에 대해 재검토한다.

## 1. 한 줄기 긴 장벽으로 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631년) 봄 2월에 영류왕(榮留王)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장성(長城)을 쌓았는데, 동북쪽 부여성(夫餘城)으로부터 동(서의 오기, 필자 주)남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1,000리가 넘었다. 모두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0 영류왕 14년)

고구려는 631년부터 대당외교를 중단하고 당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방어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동북 부여성부터 서남의 바다까지 장성을 쌓은 것인데, 이를 위해 남자들이 모두 동원되었고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고 전한다. 기록에 보이는 대략적인 경로 정보와 16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통해 장성 축조가 거국적인 대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대로라면 장성은 그 길이가 거의 500km에 이르는 방어물이다. 이런 규모라면 천여 년의 시간이 흘렀더라도 흔적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 아래 어디의 무엇이 장성 유적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크게 평원토벽설(平原土壁說)과 산성연결방어선설(山城連結防禦線說)로 정리할 수 있다.

평원토벽설은 양국의 자연 경계선이었던 요하(遼河) 동안(東岸)에 장벽을 세웠다는 것으로, 노변강(老邊



당 태종(太宗)이 개전을 명하자, 이세적(李世勣)이 이끈 당군은 645년 4월 요하를 몰래 건너 무순(撫順)의 현도성을 급습하였다. 이때 요하에서 현도성에 이르는 경로상에 있던 고구려의 봉수(烽燧)와 성보(城堡)는 경보를 올리지 못한 채 모두 함락되어 현도성의 고구려군은 적의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만약 당시 고구려가 국경지대에 세운 장벽이 있었다면, 당군은 요하에서 무순에 이르는 도중에 이를 넘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살필 수 있는 것은 봉수와 성보 그리고 현도성 등의 성곽뿐이다. 특히 평원토 벽설에서 말한 요하 동안에 세워져 있었다는 토축 장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공사 결과가 한 줄기의 긴 장벽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방어 기능이 있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전국(戰國) 시대 이래 여러 왕조에서 장성을 축조하였지만, 명대(明代)에 이르러서야 장성은 비로소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sup>3</sup> 이전까지의 장성은 얇고 낮은 벽이어서 방어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침입을 막기보다는 경보를 올리는 데 주 기능을 두었다. 그러다가 명대에 높고 두꺼운 방벽을 쌓아 이를 방어의 중심으로 삼고, 돈대(墩臺)나 보(堡) 같은 요새를 두어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방어선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일렬로 쭉 늘어선 방벽으로 당군을 막아내려 했다고는 여길 수 없다.

## 2. 수(隋)와의 전쟁 경험, 겹겹이 늘어선 성곽으로 방어전술 강화

그러면 고구려가 거국적 공사를 통해 구축했던 방어선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방어선이 당군에 맞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관점에서 보자. 침공에 앞서 당은 수의 고구려 침공이 어째서 실패했는가를 살폈다. 당 태종이 고구려와의 전쟁에 종군했던 장수에게 이를 묻자 그는 “동이(고구려)는 수성(守城)을 잘하여 이를 공격하더라도 바로 함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자치통감(資治通鑑)』 권197). 간결한 설명이지만 장수의 말에는 수가 대군을 동원하여 맹렬히 공격하였으나 성곽에 의지한 고구려군의 방어에 가로막혔던 상황이 잘 드러난다. 적국의 장수도 이 방어전술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바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구려는 당을 상대로도 성곽에 의지한 방어전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 재침을 놓고 647년 당 조정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구려가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 (공격해도) 바로 함락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 사실(『자치통감』 권198)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645년 전쟁을 치른 당은 고구려의 방어전술을 수대(隋代)의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었다.

3 阪倉篤秀, 2000, 「余子俊と邊牆-明代における[長城]修築の轉換點-」 『關西學院創立 111週年記念論集』



남마권자산성에서 바라본 득리사산성(뒤편의 산)

앞서 이세적 군대의 침입 과정에 보이는 요하에서 현도성까지의 구간에 늘어서 있던 봉수와 성보들은 당군의 침공에 대비한 방책이었다. 수와의 전쟁으로 요하가 새로운 국경선이 되었고, 이러한 서부 변경의 후퇴에 따라 요하선에 대한 방비가 필요했다.

또한 방어선 강화의 예로는 요령성 심양(瀋陽)에 있는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을 들 수 있다. 이 성벽은 바깥쪽 석축 성벽과 나중에 추가로 쌓은 안쪽의 토축 성벽으로 이루어졌는데, 토벽 속에서 수나라 오수전(五銖錢)이 나왔다. 이를 단서로 안쪽 성벽을 천리장성의 축조 시기에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4</sup>

이 성은 동남쪽으로 19km 거리에 있는 고이산성(高爾山城)보다 소형이다. 신성으로 여겨지는 고이산성이 고구려 서북방의 주요 요새라는 점에서, 석대자산성은 방어선의 주축이라기보다는 전초기지일 가능성이 크다.<sup>5</sup> 그런데도 이곳에서 631년 이후의 특정 시기에 성벽 보강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성벽 강화가 방어선의 몇몇 주요 성곽에서만 아니라 고구려 서변의 방어선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성곽에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동반도의 와방점시(瓦房店市) 득리사산성(得利寺山城)이 여기에 해당한다. 득리사산성 서벽에서는 보축(補築)과 웅성(甕城)이 추가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축성 시기를 특

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簡報」, 『考古』 1998-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臺子山城』 上·下, 文物出版社

5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석대자산성』



후성산산성의 작업 구간

정할 수는 없지만, 645년 전쟁에서 주전장이었던 요동반도 소재의 성곽이라는 점에서, 방어선의 강화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존 성곽 보강 작업과 함께 새로운 축성도 병행되었을 것이다. 장하시(莊河市) 성산산성(城山山城)은 협하(夾河)를 사이에 두고 후성산산성(後城山山城)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두 성곽 간의 거리는 1.5km로 매우 가까운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득리사산성과 그 동편에 있는 남마권자산성(南馬圈子山城)에서도 확인된다. 성산산성 건물터에서 고구려 기와가 나왔다는 점으로 이곳이 일대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후성산산성은 성벽에 가공하지 않은 성돌을 사용한 구간들이 보이며<sup>6</sup>, 당시 작업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급하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축성을 서둘러야 했던 상황으로는 당군의 침공이 예상되어 고구려가 대대적인 방어선 정비에 나섰던 631년 이후의 상황이 적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성산산성이 있음에도 근접한 곳에 성곽을 더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장하 지역은 요동반도 남단의 중간에 있어 대당 방어의 최전선에서 볼 때 후방에 해당한다. 성산산성이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때, 성안에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수가 한정되었을 것이지만, 전선의 후방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대규모 침공을 예상한 만큼 전선 후

6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大連城山山城 2005年 發掘報告」, 『東北史地』 2006-4

7 양시은, 2016, 『고구려성 연구』, 진인진

방 지역에도 주민과 양곡 등 물자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곽이 필요했을 것이다.

앞에서 살핀 647년 당 조정 회의 내용에는 645년 전쟁을 되새기며 ‘(그때 요동의) 고구려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했으며 (우리 군은) 함락한 성에서 저들이 (모아둔) 양곡을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 이제 소규모 부대를 자주 보내 … (고구려인이) 입보(入堡)케 하면 … 압록강 이북의 땅은 싸우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언급이 보인다. 여기에서 고구려의 대당 방어전략을 알 수 있다. 성곽의 방어력 강화와 더불어 적이 쳐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의 주민과 물자를 성안으로 들여 농성하는 일종의 청야(淸野)전술을 주 내용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방어전략은 수와의 전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13년 수 양제(楊帝)는 전해의 실패를 되새겨 침공군을 나누어 고구려성 여러 곳을 공격하였고, 압록강 북쪽 오골성(烏骨城, 현재의 鳳凰山城)까지 수군이 진출하기도 하였다. 당군의 침입을 예상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최전선뿐 아니라 후방 일정 지역까지 전면적으로 방어체제를 정비했다고 본다.<sup>8</sup> 장장 16년간의 거국적인 공사가 필요했던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 3. 645년 전쟁과 당군의 패배

이제 고구려가 준비했던 방어전략이 실제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자. 645년 전쟁이라면 안시성이 우선 떠오른다. 개전 이래 고구려군은 패배를 거듭하였는데, 안시성의 결사 항전으로 가까스로 당군을 물리쳤다. 이것이 대체로 645년 전쟁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이해였다.

당의 전격적인 기습에 고구려는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적을 처음 맞닥뜨린 현도성은 맞서 싸우지 못하였고, 개모성은 외부의 도움 없이 항전하다가 함락되었다. 조직적인 대응이라 할 원병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개전한 지 한 달이 지난 요동성 공방전에서였다. 그마저도 요동성과 연계되지 못한 채 이세적군에 패해 후퇴하였고, 요동 방어의 주요 거점인 요동성은 함락되었다.

언뜻 당군의 공격에 고구려가 속수무책으로 패한 암울한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군은 연전연승을 거두면서도 요동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전한 지 석 달이 되던 6월 하순, 이때까지 당군의 작전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몇 개의 성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신성, 건안성 등은 당군의 공격을 견뎠고, 이후 항전에서 활약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당군의 진격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요동 서북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8 이렇게 볼 때 부여성에서 바다까지의 천여 리란 서부 국경의 전 구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修辭的 표현이라 여겨진다.



전쟁 상황도 - 645년 당군의 침공과 고구려군의 대응

은 10월 퇴각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침공에 앞서 당 태종은 이세적 등이 지휘한 요동 방면 공격군과는 별도로 장량(張亮)의 평양 공격군을 편성, 고구려 왕도 평양성(平壤城)으로 진격을 명하였다. 5월 2일 요동반도 남단 비사성을 함락한 장량이 압록강으로 따로 병력을 보내 무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나 이 무렵 평양 남쪽에서 신라군 5만이 임진강(臨津江)을 건너 수구성(水口城)을 공략한 것이 그 작전의 일환이었다. 이해 초, 당 태종이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에게 “당군이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평양으로 곧장 나아갈 것이고 4월

초순에 개전할 것이니 준비했다가 장량의 지휘를 받으라.”<sup>9</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라면 장량군은 5월 무렵 신라군과 연결하기 위해 남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량군은 남진하는 대신 요동반도를 북상하여 7월 5일 개주(蓋州) 건안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안시성 공방전이 한창이던 9월에는 비사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곧장 평양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에 따르면, 요동 방면군도 장량의 평양 방면군과 보조를 맞추려고 남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6월이 되도록 이들은 요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군이 요동성 등 몇몇 거점을 차지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고구려의 방어체제에 가로막혔던 것이다.

당군은 시일을 정하여 신라군에게 평양 남쪽을 공격하게 하고, 그 지휘권까지 사전 정리해 두었을 정도로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웠다. 이세적 등 당군 장수는 물론이고, 군주인 태종 자신도 수 말 혼란기에 무수한 전공을 올린 이였다. 누가 보더라도 당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의 침공은 642년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과 대신 100여 명을 살해한 고구려의 혼란을 틈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당 태종은 속전속결로 평양성까지 진격하려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동안의 이해와는 달

9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一首」, 『文館詞林』 권664

리, 전황은 고구려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기세등등했던 당군이지만 당 태종 이하 전군은 국경지대인 요동에서 발이 묶인 채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군이 9월 14일 철군했음을 고려하면 요동 방어선에서 허비한 시간은 전쟁 기간의 절반에 해당한다. 고구려가 구축해 둔 요동 일대의 방어체제가 당군의 공세를 가로막음으로써 제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후 6월 22일 벌어진 주필산(駐蹕山) 전투<sup>10</sup>에서 대패했으나, 안시성의 결사 항전으로 극적인 반전을 거두어 전쟁이 일단락된다. 안시성도 요동방어체제의 일부가 되는 성곽이라는 점에서 그 승리 역시 631년 이래 고구려가 기울인 노력의 성과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sup>11</sup>

## 4. 맺음말

고구려는 당의 위협에 맞서 631년부터 16년 동안 대공사를 통해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 축조는 하나의 긴 장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곽에 의지한 방어전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공사였다. 최전선부터 후방 일정 지역까지 방어선을 단단히 하고 기존 성곽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새로운 축성도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동방어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이에 힘입어 당군을 두 달이 넘도록 최전선인 요동 서북부에 묶어두었다. 고구려는 주필산 전투의 패배로 한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안시성 항전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안시성도 요동방어체제의 일부가 되는 성곽이라는 점에서 그 승리 역시 631년 이래 고구려가 추진한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0 안시성 동남 8리 지점에서 벌어진 전투. 이 전투에 고구려는 15만 대군을 투입하였다.

11 이 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제, 2023, 「고구려의 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韓國古代史研究』 109 참조.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이성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구려사 전공.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를 비롯, 최근 연구로는 「唐 高宗의 泰山 封禪과 高句麗의 對應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高句麗渤海研究』 64, 2019), 「榮留王의 王權 강화와 淵蓋蘇文 政變」(『韓國古代史研究』 104, 2021)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